

완도 관광해설가 전문교육 절실

최근 24명 채용 47명 활동
간단한 교육후 각 면에 배치
“향토문화 전문지식 갖춰야”

한해 200여만명의 관광객들이 완도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해설을 하는 ‘문화관광해설가’의 전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재미있고 알기쉬운 해설로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관광해설가’(이하 해설가) 남녀 24명을 채용했다.

군은 앞서 지난 2010년부터 해설가 24명을 배치, 이번 선발로 총 47명이 완도, 군외, 청산, 보길, 고금, 금일, 소안, 노화 등 8개 읍·면 주요 관광지에서 20명이상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설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문화관광해설가’ 신청자격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원직이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 만 65세 이하로 활동력 있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였다.

이어 군은 선발한 해설가를 대상으로 열흘간 전문적인 해설기법과 문화관광해설가의 자세, 전문 이미지 메이킹, 관내 주요 관광지 현지안내 실습 등을 교육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해마다 국내외 관

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지역향토문화 관광을 소개하는 남녀해설사들을 전문지식이 크게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적당한 뽑아 각 읍·면별로 찾는 관광객들을 어설피게 안내하는 것 아니냐”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향토 문화에 대해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남도 주관의 전문적인 교육을 마쳐야 자격을 인정받는 반면 문화관광해설가는 각 시·군에서 자체 선발후 교육후 배치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완도를 찾는 관광객은 보길도 16만명, 청산도 30만명 등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진도군 체조교실 ‘줌바 댄스’

진도 주민들이 최근 실내체육관에서 전문강사의 지도에 따라 라틴음악에 춤과 운동을 결합한 ‘줌바(Zumba) 댄스’를 하고 있다. 진도군은 이달 초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매주 수·금요일 ‘줌바 댄스’ 체조교실을 운영한다.

해남군 로컬푸드 활성화... 직매장 구축·레스토랑 운영

농업인 등 420명 교육도

해남군이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데 이어 로컬푸드 마인드 향상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로컬푸드 레스토랑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오는 12

월까지 추진되는 용역은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로컬푸드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에도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에 이어 최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로컬푸드 중점대상자 4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로컬푸드 중점 대상자는 소규모 농업인, 하우스 농가, 임업인, 여성 농업인 등이다. 군은 이들을 로컬푸드 중점관리자로 선정

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로컬푸드 사업의 핵심주체로 활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11일 김포시와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견학하고,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로컬푸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12월 용역 결과에 따라 직매장 위치를 선정하고 건립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 조도면 69년째 ‘광복절 체육대회’

6·25 발발 1950년 빼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열려

39개 마을·출향인 참석
올 대회 15~16일 개최



지난해 진도 조도면의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 모습.

진도군 조도면 주민들과 출향 인사들이 69년째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8·15 광복절 행사를 이어오고 있어 화제다.

10일 진도군에 따르면 조도면민들은 1945년 해방 이후 매년 8월 15일이면 바쁜 일손을 잡고 한자리에 모인다. 광복절을 기념하는 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빠짐없이 열려 올해로 69년을 맞았다.

광복 후 목표와 광주에 유학중인 학생들이 주축이 돼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주민단합을 위해 마을별 체육대회를 연 것이 계기가 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70주년 광복절인 올해의 경우 15~16일 이틀간 조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민과 향우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를 연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해는 많은 향우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대형 태극기 게양, 만세 삼창, 태극기 흔들기 등

광복의 의미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회 초창기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준비도 마땅치 않아 모래밭에서 짚으로 만든 공을 차고 씨름, 윷놀이, 배구 등을 하면서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고 단합을 다졌다. 이후 대회를 거듭하면서 학생들 중에 훗날 배구, 탁구 등 국가대표와 실업팀 선수·감독, 체육교사로도 많이 성장하기도 했다.

또 39개 마을 규모에 따라 우승의 향배가 갈리는 웃지 못할 일들도 빈번해 우승기를 지키느라 진땀을 빼던 일 등은 지금까지도 마을 주민들에게 추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전 주민들이 참석해 마을의 명예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광복의 특별한 의미까지 더해져 이 체육대회는 면민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조도면민들의 각별한 애정은 행사준비 과정도 남다르다.

초창기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행사 비용을 모금해 시작됐지만 지금은 조도면 체육회에서 주축이 돼 행사 준비에 서부터 진행, 마을 잔치까지 모든 주민과 향우들이 힘을 모아 치러내는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찾는 전국의 출향인사들이 많아 체육대회가 펼쳐지는 광복절이 ‘조도면의 명절’이 된 지 오래다.

광복절 기념 조도면민 체육대회는 39개 전 마을이 축구, 배구, 윷놀이, 마라톤, 줄다리기 등의 경기에 출전해 자웅을 가린다. 또한 부대행사로 고무신 멀리 던지기와 어르신 낚시대회, 훌라후프, 노래자랑 등도 함께 열리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가격 3배 높아도...진도 ‘은빛 멸치’ 인기

진도산 은빛 멸치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진도 근해의 청정해역에서 잡은 멸치를 해풍과 태양광으로 건조시킨 진도 멸치는 선명한 은빛을 띠고 있어 ‘은빛 멸치’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진도 은빛 멸치’는 1.5kg 1상자 기준으로 10만원 선으로, 통멸치보다 2~3배나 비싸다.

특히 진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해역으로, 대단위 선단 어업이 아닌 멸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낭장망 어업’으로 멸치를 잡고 있어 신선도가 유지되는 고품질 멸치로 수도권에서 최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낭장망 어업’은 대나무를 사용하는 ‘죽방’과 달리 그물을 이용해 어류를 가두어 잡는 진도지역 전통 어획 방법이다. 진도 멸치는 멸치를 잡아 배 위에서 바로 끓는 물에 멸치를 넣어 익힌 후 물으



로 올라와 태양광과 해풍으로 말린 후 저온 창고에 바로 보관한다.

진도 멸치는 짠맛이 강하지 않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다. 또 진도 멸치가 서식하는 해역의 물살이 매우 세기 때문에 멸치의 운동량이 많고 활동력이 우수해 육질이 탄탄하다.

한편 진도지역은 매년 261 어가에서 1000여t의 멸치를 잡아올려 15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2019년까지 60억원 들여

진도읍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도읍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변화될 전망이다.

진도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6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진도읍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진도읍 동외리, 당동리, 용두리, 두정리, 통정리 등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 ▲골목길 가꾸기 ▲마을회관 리모델링 ▲교차로 안전확보 ▲소공원과 주차장 조성 ▲공동주택 조성 시범사업 ▲주택개량과 빈집 철거 등을 각각 실시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40~50년생 50만주 식재됨
 현재재목 가격이 주당 3000원 정도 거래됨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1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수암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주택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품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평동공단 공장 대 1,650㎡, 건 920㎡ 매 11억7천만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동명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1,400㎡ 매 23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1층주거지역 대지 840㎡ 3억5천만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 10억5천(창고, 차고지 적합)
- 수북면 대평리 4,641㎡ 매 8.4억(전원주택부지 적합)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은행(ATM), 편의점, 소매점	임대완료
2층		잔여 1201㎡
3층		1629㎡
4층		1267㎡
5층		1400㎡
6층		임대완료
7층		1400㎡
8층	은행, 보험, 증권 기타사무실	1383㎡
9층		잔여 591㎡, 307㎡
10층		1342㎡
11층		1307㎡
12층		임대완료
13층		임대완료
14층		임대완료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